

한국문학 번역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 『한 명』 번역 결정부터 *One Left* 출판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김 자 경
(중앙대)

1. 서론

본 연구는 브루스 풀턴(Bruce Fulton), 주찬 풀턴(Ju-Chan Fulton)¹⁾이 소설 『한 명』 번역을 결정하면서부터 이 작품이 *One Left*로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김숨의 소설 『한 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70여 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과 관련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정리한 발화와 내용이 316개의 미주로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집요하게 증언집의 내용을 주석 표시한 것은 증언이라는 역사 자료를 전면화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소설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이자 ‘위안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시도라 할 수 있다(배지연 2020: 269).

이 작품을 번역한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은 영어권에서 대표적인 한국문학 번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려 40년 이상 한국문학을 번역해왔으며, 그동안 번역하여 출판한 작품은 216편에 이르고, 1985년 대한민국문학상 번역상, 1994년 한국문학번역상, 1998년 펜(PEN) 번역문학상, 2009년 대산문학상 번역상, 2014년 미국 문예지 매사추세츠 리뷰 카메츠키 번역상(The Massachusetts Review Chametzky Prize)을 수상하였고, 한국문학 관련 첫 미국연방예술기금 수혜자로 두 번에 걸쳐 기금을 받았고, 미국 펜/하임(PEN/Heim) 번역기금을 받았고, 캐나다 밴프국제번역센터(Banff International Art Center)에 불어/영어/스페인어 외 언어번역가로서는 처음으로 초대받았다. 또한 브루스 풀턴은 2018년 한국문학 연구와 번역으로 한국문학을 영어권에 널리 알린 평생공로를 인정받아 만해대상 문예 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학평론가 권영민(2020: 52)은 브루스 풀턴을 현재 영어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한국문학 번역가로 평가하며, 부인 주찬 풀턴과 함께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문학을 번역해왔으나, 이 두 번역가의 손에서 한국 현대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었음을 아는 한국인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 출판을 섭외하고 책이 나오면 작품 낭독회 투어를 하는 등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일도 꾸준히 해왔다.

『한 명』의 번역 작품 *One Left*의 역사 후기에서 두 번역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번역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작품이 출판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기까지 번역가가 기울인 노력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기반으로 텍스트 바깥에서 번역가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번역물이 아닌 번역가를 중심에 놓고 번역 현상을 바라볼 때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번역은 텍스트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왔으며,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 두 번역가님의 뜻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브루스 풀턴(Bruce Fulton), 주찬 풀턴(Ju-Chan Fulton)으로 호칭을 통일한다.

논의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문학이 번역되고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브루스 폴턴과 주찬 폴턴이 『한 명』의 번역을 결정하고 *One Left*로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한국문학의 번역은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커다란 담론 하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해외 독자의 독자 경향을 분석하여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거나(최민정 2014) 학술담론, 매체평가, 독자서평을 기반으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찾아보고(박은숙, 박윤희 2019), 번역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원을 제안하거나(손지봉 2010) 한국문학번역원의 심사기준, 심사평에 드러난 처방적 번역규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윤후남 2012) 한국문학의 번역에서 번역가, 작품 선정, 번역전략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박경란 2006).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도 이루어졌으며(노대원 2016; 유한내 2017),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과 수용을 살펴보는 연구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곽순례 2018; 권선형 2014; 권세훈과 김갑년 2012; 김정연 2015; 남윤지 2020; 응웬 티 히엔 2020; 이희재 2015; 쥘 쉰 언 2017; 최성은 2007; 한현희 2018 등). 이와 함께 텍스트 차원에서 문제점을 찾거나 번역전략을 논의하는 연구들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곽순례 2017; 권오숙 2014; 김경희 2017; 오세인 2019; 이지민 2016; 이현주 2020; 박진임 2004; 신혜정 2017 등).

하지만 한국문학 번역가의 관점에서 작품 선정부터 출간까지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반면 해외에서는 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출간되기까지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번역가를 포함한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예를 들어 부젤린(Buzelin 2006)은 세 곳의 독립 출판사를 중심으로 문학번역 생산 과정에서 번

역가, 감수자, 에이전트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탐구하였고, 카디안사와 살람(Kardiansyah & Salam 2020)은 작가와 번역가, 출판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학번역 과정에서 여러 주체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파이나우어와 로렌스(Feinauer & Lourens 2021)는 문학번역 과정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작가, 감수자 등 참여 주체들의 이메일 자료를 분석하여 상호작용과 위계질서를 살펴봄으로써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회적 맥락에서 보여주었다. 아웅(Awung 2014)은 아프리카의 문학작품을 번역한 존 리드(John Reed)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특정 작품을 번역하게 된 이유나 과정, 출판사 및 작가와의 의사소통 등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최종 결과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의 시선을 통해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논의함으로써 여러 주체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웅은 번역가의 시선과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 과정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카인들(Kaindl 2021: 9-12)은 문학번역에서 번역가에게 중심을 놓고 논의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담긴 *Literary Translator Studies* 책의 서문에서 공통분모와 보편적으로 유효한 일반 원칙을 찾으려는 시도 속에서 번역가가 개인적 특성 없이 주어진 과제 해결만 추구하는 수동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계 같은 이상적인 번역가의 모습이나 단일화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특정 상황과 맥락의 제약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번역가에게 주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시메오니(Simeoni 2007: 15)는 오랫동안 번역 관습을 설명하는 담론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었으나 텍스트에 국한하여 관찰해왔으며 “사회적 눈(sociological eye)”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문학번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번역가의 시선으로 이야기할 때 번역가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약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 생산 과정을 내부자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며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번역 현황과 수용을 살펴보고 텍스트 차원에서 번역전략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문학 번역가의 관점에서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논의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번역가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번역할 작품의 선정부터 출간까지 번역가가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학의 번역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학 번역가가 수행한 역할과 번역가를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약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문학 번역가의 노고를 텍스트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두 번역가와 진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2021년 1월 26일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두 번역가와 약 두 시간에 걸쳐 줌(zoom)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전사한 후 정리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뷰 방식은 반구조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번역가와와의 인터뷰에 앞서, 해당 작품의 번역 출간과 관련하여 나온 여러 언론 기사 및 번역 작품 출간 후 이루어진 번역가의 인터뷰²⁾를 확인한 후 인터뷰 질문을 사전에 간략히 전달하고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작품 선정부터 출판까지의 순서로 1) 작품 선택 (작품 번역 계기, 작품 번역을 결정한 동기, 어렵지만 끝까지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힘 등), 2) 번역물의 작업 과정 (제목 번역, 표지, 각주 작업 등), 3) 저자, 에이전시, 출판사와의 소통 (에이전시를 통한 소통의 문제점 등), 4) 출판 과정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어려웠던 부분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범위는 두 번역가가 『한 명』 번역을 결정하고 번역 작업을 하고

2) 총 네 건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첫째, 2020년 9월 27일 타운홀 시애틀과 한인인민사관 찬회가 책 출간을 기념하여 진행한 출판 강연회, 둘째, 2020년 12월 4일 런던대학교 소아스(SOAHs) 한국학과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 셋째, 2020년 12월 14일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에서 개최한 GWIKS 북 토크, 넷째, 코리아 나우 팟캐스트(Korea Now Podcast Literature Series #101)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다. 네 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공개된 인터뷰 자료이다.

결과물이 *One Left*로 출판되기까지 이루어진 번역가의 역할이다.

덧붙여, 작품이 출판된 이후에 번역가가 기울이는 노고는 본 연구의 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을 밝힌다. 두 번역가는 번역 작품이 출판된 후 소아스, 버클리, 워싱턴 대학,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등 여러 대학과 문화단체, 독서단체에서 책 소개와 작품 낭독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번역가의 역할이 번역 작품이 출판되는 순간에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작품 결정부터 출판까지, 문학 번역가의 역할

4.1 작품 선택

두 번역가는 번역을 의뢰받아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번역할 작품을 선정한다고 전하였으며, 『한 명』 역시 번역가가 먼저 작품의 번역을 결정한 후에 작가와 출판사에 연락을 취하여 번역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작품을 번역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이유에 관한 두 번역가의 설명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주찬 풀턴이 이 작품을 번역하게 된 동기는 우선 김숨 작가를 주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봄, 김숨 작가의 장편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현대문학, 2013)을 읽다가 작가가 오후 네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300쪽 이상의 장편으로 쓸 수 있는 지구력에 감탄하여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명』을 접하게 되었고 끝까지 읽은 후 이 작품의 번역을 결정하게 되었다. 주찬 풀턴은 처음으로 번역하는 작가의 경우, 번역하려는 작품이 단편이든 장편이든 해당 작가의 작품을 구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 찾아 읽고 작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김숨 작가의 경우 작품들을 살펴보니 “뿌리와 역사, 사회의식, 이웃에 대한 연민이 많은 작가인데다 조사 연구도 열심히 하고 다작(多作)하는 작가인데 아직 장편이 한 권도 영어로 번역되지 않아 영어권에 데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작품의 주제 의식과 결말이 담고 있는 의미도 『한 명』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과거의 시점으로만 피해자의 아픔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시점이 오가면서 과거 ‘위안부’였던 할머니가 지금의 한국, 재개발되고 있는 서울 번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결말에서 평생 피해 자임을 숨겨온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 “위안부로 등록된 마지막 할머니”가 입증 하시는 모습을 뵈러 병원으로 향하고, 그 버스 안에서 열세 살 때 만주로 끌려 가기 전까지 고향에서 부르던 자신의 이름 “풍길”을 마침내 기억하게 되는데, 이처럼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주인공이 ‘여기 또 한 명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용기를 내고 버스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간 승리”라 생각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희망을 주는’ 결말도 이 작품의 번역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부’ 주제를 다룬 영어권 소설들을 읽고 비교하면서 왜 이 작품이 꼭 번역되어야 하는지, 이 작품만의 독특함(distinctiveness)이 있는지 브루스 폴턴과 의논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작가가 ‘위안부’를 다룬 첫 번째 장편 소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들의 실제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된 소설로, “증언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독특한 작법, 작가의 상상력과 관조적 시선, 삼인칭을 사용하여 참혹한 현실과 끔찍한 고통에 조용한 숨결을 불어넣어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감싸주는 작가의 필치”에 끌려 번역 결정을 내렸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하여 극대화시킨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얼굴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데, 책 뒤에 300개가 넘는 미주를 달았어요. 한국문학에 이 주제를 다룬 작품이 몇 있지만, 전면적으로 장편화 한 것은 『한 명』이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작가가 70년 넘게 걸려 ‘위안부’ 할머니를 주제로 쓴 첫 장편 소설이라는 점에서, 김숨 작가가 이 작품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용기 있는 작가’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작가가 용기 있게, 힘들게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번역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들었어요. 이 작업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찬 폴턴)

브루스 폴턴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현대문학은 트라우마의 역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학작품을 번역함으로써 고통

받은 개인,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치유(healing)’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작품을 번역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비극적 사건과 고통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이야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처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으며, 번역의 소명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여성 문학과 트라우마 문학의 번역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15년간 우리(브루스 폴턴·주찬 폴턴)는 트라우마 문학을 번역했는데, 교육자(브루스 폴턴)의 역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자들도 가끔 하는 질문 때문이기도 한데, ‘왜 한국에는 해피한 소설이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현대 한국문학은 현실과 역사를 다루므로 일제강점기, 분단,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고문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러한 역사는 많은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를 담은 한국문학은 트라우마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독자가 타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많은 문학 작품과 우리의 번역 작품에 한국의 굴곡진 현대사가 투영되어있음도 당연합니다. 이 작품이 ‘위안부’를 주제로 한 한국의 첫 장편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한국 역사의 비극적 사건을 망각으로부터 역사적 기억으로 바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십만 명 이상의 소녀들(그들 중 10%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의 삶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숨 작가는 소녀들의 삶과 역사가 영원히 묻히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문학에서 트라우마를 다루는 것은 진실과 화해, 나아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혹여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독자가 있을지라도, 트라우마 문학의 번역은 회복과 종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무당은 억울하게 죽은 혼이 우리에게 말을 건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혼은 종결과 회복을 거쳐 비로소 안식처로 향하게 됩니다. 작가와 번역가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희생자와 가족, 고향 사람들,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에 종결과 치유의 힘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For about fifteen years now, Ju-Chan and I have been focusing on trauma literature, part of that is because of my role as a university instructor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ion

and part of that is in response to a question that is often asked by our readers. The question goes something like this: Aren't there any happy stories in Korea? So we find that throughout much of the one hundred-plus years of modern Korean literary history many works of fiction are engaged with the realities of modern Korean history – colonization, the territorial division of the country, the Korean War, thirty years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rture during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se events profoundly affected millions of people. So we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modern Korean fiction, in attempting to engage with realities of modern Korean history, society and culture, inevitably has to deal with trauma. So we wish that our readers and my students will have an understanding of trauma, and to that end I suggest to them that they try to cultivate their capacity for empathy – the capacity to inhabit another person's life to understand how another person lives and feels. And by doing that, it allows us to understand why Korea's conflicted modern history has colored much of Korean fiction and much of what Ju-Chan and I have translated. So when we became aware of Kim Soom's novel 『한 명』 and this is the first Korean 장편소설 to focus on 위안부, we realized this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recover a tragic event in modern Korean history and to resurrect it from oblivion and return it to historical memory, to return it to Korean history. We realize that this process will be painful for many readers, but on the other hand, it will validate the lives of the two hundred thousand-plus girls who were taken from their ancestral homes and only ten percent of them ever returned to Korean peninsula. So instead of leaving the lives, history of these girls buried forever, we thought Kim Soom performed very valuable service by asking us to remember the sacrifices they made, and that the trauma results not just from their disappearance but also affects the family members and the society at large. So we recognize that in attempting to deal with trauma in Korea literature, we are engaged in a proces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more importantly healing. We think translation of trauma literature, though painful maybe to some readers, has the capacity for healing, for closure. It brings a peace of mind that accompanies the resolution. It's something like, if you're familiar with Korean native spirituality, you'll know the primary duty of 무당은 to

allow the spirits not yet arrived in final resting place to communicate with us on earth and tell their stories, have their voices heard. Only then the spirits of the individuals who died early, unnaturally can reach resolution, closure, and healing, going to their final resting place. We and author Kim Soom are trying to do something similar. We are trying to bring closure, healing to lives of two hundred thousand plus girls, their families, their home villages, and Korean society as a whole.” (브루스 폴턴)³⁾

두 번역가 모두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판단하고 분명한 목적의식과 소신에 따라 번역을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찬 폴턴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 작품의 문학적 가치, 주제의식과 문체에 주목하였으며,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한 존중과 번역가로서 그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와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 이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번역을 결정했으며, 브루스 폴턴은 트라우마의 역사를 담은 문학 작품을 번역함으로써 상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선택으로 이 작품의 번역을 결정했다.

누군가로부터 맡겨진 텍스트만 번역하는 수동적인 번역가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 참여적이며 능동적인 예술가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는 번역가의 모습이 오히려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을 결정한 두 번역가는 작가와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번역 의사를 밝혔고, 작가와 출판사가 이 결정을 크게 반기면서 마침내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4.2 텍스트 번역 작업

번역 작업은 2017년 9월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끝냈으며, “작업하면서 심적으로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오랜 시간 해온 작업이었기에

3) 브루스 폴턴은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셨으므로 한국어로 말씀하신 부분은 번역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남겨놓았다.

특히 힘든 점은 없었다”고 주찬 폴턴은 전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소비된 부분은 300여 개의 미주를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 얼굴 없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하는 통로인 미주가 정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미주를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널리 알려진 김복동 할머니는 한 명이지만 이 소설의 미주에는 생년이나 다른 몇 명의 김복동 할머니가 등장하기 때문에 작가에게도 확인하였으며 서문을 쓴 Bonnie Oh 교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김동희 관장 등 여러 전문가에게도 물어가며 수차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작품 제목인 『한 명』을 “One Person”으로 직역하지 않고 “One Left”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제목에서 말하는 ‘한 명’이란 그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십만 명 이상의 소녀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 중 남은 마지막 피해자의 상황, 그리고 이제는 생존한 피해자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상황,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피해자의 상황이라는 소설 속 상황을 최대한 여러 층위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고심한 번역가의 선택이었다.⁴⁾

“김 슈의 소설 제목 『한 명』은 아마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십만 명 이상의 ‘위안부’ 소녀들을 뜻할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전달하기 위해 ‘One Left’라는 제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소설 후반부에서 주인공이 병원으로 만나러 가는 마지막 생존 피해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Left’는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수많은 소녀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Kim Soom’s 한 명 presumably represents not just one person but two hundred thousand plus girls. We thought the best way to convey that in English was to use the title *One Left* which has additional advantage of

being the situation of the sole surviving reported 할머니 who at the end of the book is in the university hospital about to die and the protagonist decides to go visit her. So *One Left* reminds us that surviving 할머니 are very few. They are 지금 아마 열다섯, 열여섯 명. Left also means 집을 떠나다, 집을 나오다. This again refers not just to one person but all the girls who had to leave their ancestral home. So the title is significant on these two levels.” (브루스 폴턴)

또한 ‘저고리’를 ‘ch gori’로 번역하는 등 ‘치마’, ‘할머니’ 등 문화적 요소가 담긴 한국어 표현을 음차하여 번역하는 방식으로 옮겼는데, 그 이유는 번역된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는 새로운 작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번역 작품 속에 한국 문화를 최대한 녹여내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한국문학을 좀 더 “범세계적인 맥락 (cosmopolitan context)”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소설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휘는 음역하였는데, 예를 들어 ‘언니’를 ‘*nni*’로 번역한 이유는 만주 위안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서로를 ‘언니’라고 부르는 부분은 그들이 서로를 향해 애정과 연민,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독자가 이와 같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주 위안소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에서 소녀들은 서로를 언니라 부르는데, 이는 이들이 매우 가깝고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언니라는 표현을 음역하여 소녀들이 서로를 향해 깊은 애정과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s significant in the scenes taking place in 위안소 in Manchuria, the girls refer to each other as 언니. What this tells us is that they are very close to one another, they are showing a strong spirit of togetherness and solidarity. And it’s very important that readers understand this. So by referring to each other by traditional kinship terms, we want readers to understand that these girls have a great deal of affection for each other and a great deal of empathy. So there are several good reasons to

4) 두 번역가는 “늘 작품의 제목 번역에 유별히 신경을 쓰는데, 복합적인 의미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제목을 정하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김훈 작가의 『화장』의 제목 번역에서는, 죽은 부인의 ‘화장’과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From Powder to Powder”라는 제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reproduce Korean words just as they are in Romanization.” (브루스 플턴)

4.3 저자와 에이전시, 출판사와의 소통

2017년 9월 시작된 번역 작업은 2018년 2월에 마무리되었고, 두 번역가가 여러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낸 후에 2018년 말 하와이 대학 출판사(University of Hawai'i Press)와 출판 계약이 가능해졌으나, 갑자기 등장한 한국 에이전시 측의 세금에 대한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두 번역가는 가능한 모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계약은 무산되고 말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작품을 번역하여 내놓겠다는 목적으로 고군분투한 작품의 출간이 틀어지게 되면서, 번역가들은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회의를 느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문학번역은 단순했습니다. 출판사와 작가에게 판권과 용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출판사들이 작가가 용권의 일부를 가지도록 하면서 작가를 위한 에이전시(저작권 담당자)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우리는 이천년대 여성작가 단편집을 기획하여 번역하고 있었고, 창비의 두 작품이 포함되어 저작권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두 시간 동안 답소를 나누며 분명해진 것은, 이분이 해외 출판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가와 번역가 외에 출판사, 에이전시가 얽혀있습니다. 저작권 장사를 하는 에이전시의 입장에서 미국 출판사나 번역가는 기능적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황순원, 오정희, 최윤, 조세희, 최인호 등 작가들과 맺었던, 창작자로서의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에이전시는 보통 해외 에이전시를 별도로 두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작가와 번역가 외에도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견으로, 이들은 ‘잉여인간’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관계자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행위에 있어서 합의된 기준이 없고, 도덕적인 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Until about ten years ago, literary translation was very simple, uncomplicated. Because from publisher and writer’s point of view, there were two kinds of rights, 판권 and 용권: publisher has 판권, the rights to

publish authors’ works. but 용권 includes the right for translation, reprinting, serialization, and movie rights, etc. But ten years ago publishers decided they were going to arrange for writers to take some of 용권. So that’s when Korean publishers began to hire writers’ representatives. In 2011, we were working with New Millennium 2000년 여성작가 단편집. One or two stories were published by 창비. I was in Seoul for 안식년, so I arranged to meet new copyright representative from 창비. We talked for about two hours. And it became clear that she had no experience with overseas publishers. So now it was not just author and translator. It was author, translator, publisher, and around the same time, literary agents emerged, 탄생! So literary agents’ job is to sell 저작권. 저작권 장사. They have a job to do. As far as they’re concerned, American publisher and translator are people who merely perform a function. So instead of creator-partnership, we had creator partnership with 황순원. We had creator partnership with 오정희. We had creator partnership with 최윤. We thought we had creator partnership with 조세희, 최인호. But with Korean publisher’s rights representative and their literary agents, and literary agents usually had partners overseas, so not one literary agent but two literary agents. Then 한국문학번역원 became more active. So instead of just author-translator, we have a variety of 관계자. In our opinion, these are 잉여인간. The big problem is, there is no agreement about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that would govern all parties. So how are all these 관계자, supposed to interact? 도덕적인 면이 없어요.” (브루스 플턴)

문학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예술가로서, 번역가와 작가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맺어진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번역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작가와 번역가 외에도 출판사와 국내외 에이전시, 때로는 한국문학번역원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한국문학의 번역 및 출판 상황이 복잡다단해졌고, 이처럼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얽히게 되면서 상호소통 과정에서 때로는 윤리의식의 부재마저 나타난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김숨의 에이전트는 번역권 매매가 일이므로, 번역가로서 우리의 역할이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번역하기로 결정할 때, 그 작가를 번역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계속, 계속.”

“Because of the situation, the agent for Kim Soom, her job is to sell rights to Kim Soom’s translation. She did not understand our role as a translator is not simply that we receive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then we’re done. No. When we decide to translate a short story or a novel, we are also making a decision to translate an author, not just at one time, but possibly 계속 계속.” (브루스 폴턴)

작가를 대변하는 에이전시가 작가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번역권 매매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한국의 작가와 문학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기까지 많은 영역에서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번역가를 일정한 돈을 받고 한 작품의 번역만 끝나면 사라질 존재, 즉 일회용 도구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번역가들은 지적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작가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는데, 에이전트는 오케이, one work, done.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되지요. 그보다 번역가들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번역가를 하나의 기술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작가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해요) 작가의 정신, 숨소리까지 제대로 번역해야 하잖아요.” (주찬 폴턴)

한 작품만 번역하면 번역가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에이전시가 많지만, 문학 작품의 번역을 위해서는 작가의 문학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작가정신과 호흡까지 고려하여 옮기는 번역가가 필요하고, 따라서 번역가를 그저 한 작품만 번역하고 교체될 존재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번역할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 분배 측면에서도 국내 출판사와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 출판사 측에서 미국 출판사의 경우에는 상업출판사와 대학출판사의 인세 분배

방식이 대체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출판법 관례에 따른 인세 분배를 고집하면서 계약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는 이후 작가, 에이전시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었다).

“번역이 되어 다른 시장에 나가면 그 시장에 맞춰야 하는데, 특히 한국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째지 돈, 그러니까 보너스가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⁵⁾ 번역가로서 이 책을 영어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어로 쓴 그 많은 소설들과 영어로 번역된 작품들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한 작품이 영문 작품으로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번역문학을 다루는 출판사는 대부분 1년에 6권~20권 미만 출판하는 소규모인데, 한 출판사가 1년에 적어도 5,000개가 넘는 출판 제안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찬 폴턴)

“예전 1979년 황순원 선생님과 악수하고, 선생님께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그걸로 끝이었고 100% 신용이었지요. 우리가 질문하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틀렸어요, 하면 선생님이 빨간 펜을 들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익은 반반씩 합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79년도부터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주찬 폴턴)

번역물이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문학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영어권 소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독자에게 선택받고 읽힐 수 있는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번역가가 쏟는 정성과 수고는 작가 못지않게 크지만, 그 수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두 번역가는 1979년 황순원 작가와 번역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부터 작가와 맺어온 동등한 관계를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을 때 심적으로 힘들었고, 번역가로서 한국문학 번역을 둘러싼 현실에 회의

5) 주찬 폴턴은 어떤 한국 작가가 많은 선인세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가 있지만 이는 사실 매우 드문 경우라는 점에서 오히려 작가에게 엉뚱한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번역문학만 출판하는 미국 출판사의 한 편집장은 문학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는 경우 작가는 원작 판매로 이미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 작품에서 나오는 수익은 일종의 보너스처럼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고, 수익 배분 과정에서 번역가의 기여를 더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음을 덧붙였다.

를 느꼈다고 했다.

이처럼 하와이 대학 출판사와 계약이 무산되고 번역가로서 회의감을 느끼면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2019년 5월 한겨레 신문에서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고 김복동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진을 본 후에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힘을 얻었다고 주찬 폴턴은 설명했다.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작가가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고 쓴 작품이기에, 작가의 정신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번역이었기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할머니들과 작가를 위해서 분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어 출판 제안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판 제안서를 보냈고(One Left)를 출판한 워싱턴 대학 출판사는 32번째로 제안서를 보낸 출판사) 워싱턴 대학 출판사가 제안서를 받고 2주 만에 출판 결정을 내렸지만, 한국 측에서 다시 출판 거부를 하면서 몇 달이 지체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번역가가 직접 서울로 이동하여 작가와 에이전트를 설득한 끝에 출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작품 출판을 위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할머니들께서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내겠다는 강박감”에 있었다고 번역가는 회고했다.

4.4 출판 과정

번역 작업을 시작했었을 당시, 미투 운동도 있었고 성폭력, 인신매매,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크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국 펜 하임(PEN/Heim) 번역 기금도 받았기에, 두 번역가는 출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빨리 번역해서 출판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업이었으나, 2018년 초 번역이 마무리된 이 책은 2020년 9월에서야 출판될 수 있었다.

이처럼 출판이 늦어진 것에는 미국에서 이 작품을 낼 출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첫 번째로 계약할 수 있었던 하와이 대학 출판사를 놓친 후, 작품을 낼 의사가 있는 다른 출판사를 찾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00개 이상의 미주가 달린 이 작품을 역사책이라 해야 할지, 소설이라 해야 할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상업 출판사(commercial publisher)

도, 대학 출판사(academic publisher)도 쉽게 출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번역가들은 전한다. 첫 번째로 계약 제안을 한 하와이 대학 출판사와 이 작품을 출판한 워싱턴 대학 출판사(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두 곳을 제외하고는, 다들 중요한 작품이라 말하면서도 출판을 하겠다고 나선 곳은 없었다.⁶⁾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던 주찬 폴턴이 워싱턴 대학 출판사(가)가 여성학과 여성, 인권 문제에 진보적 성향의 출판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서를 내면서 마침내 작품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례는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무대에서 여전히 작은 존재”(권영민 2020: 52)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문학에서 한국문학의 존재를, 한국문학은 미국에서 변방문학이라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주찬 폴턴)

예를 들면 179개의 세계 문학 작품을 내놓았다고 자랑하는 미국 출판사도 실상 그 대부분은 유럽권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아시아권의 작품은 다섯 개에 불과하며, 그 다섯 개 작품 중 하나가 한국 작품이라고 주찬 폴턴은 전했다.⁸⁾ 미국의 출판시장에서 아주 작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번역문학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문학 작품이 미국 출판사를 찾아 출판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한국 출판사와 에이전시, 작가와 문단, 일반 독자들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두 번역가는 힘주어 지적했다. 즉, 미국에서 한국 문학이 처한 현실

6) “다들 너무 중요한 소재이고 우수한 번역이라 말하면서도 물주들(stakeholders)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너무 관음적(voyeuristic)이라 말했고, 자극적(sensational) 주제로 이미 다뤄진 바 있어 독자들에게 진부하고 차별성 없는(conventional and unnuanced) 작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번역가들은 ‘물주(stakeholders)’가 누구인지는 애매하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면이 있으리라 추측하였으며, 미국의 일본우호적 풍토와 일본의 물질적 투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 주찬 폴턴은 워싱턴 대학 출판사가 아시아학, 아시아계 미국학 출판에 중점을 둔, 양질의 서적 출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학 관련 서적은 출판한 바 있으나 한국문학 번역서는 이전에 출판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추가 설명하였다.

8) Archipelago Books(<https://archipelagobooks.org/>)에서 출판된 책들을 한번 직접 세어 보라고 주찬 폴턴은 지적했다. 주찬 폴턴에 따르면, 미국의 출판시장에서 번역 출판물은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세계번역문학은 0.7%에 불과하다. (<https://dialogos.ca/2016/04/the-infamous-three-percent/>참고)

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두 번역가가 얼마나 힘들게 출판사를 섭외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역가는 오랫동안 “책을 읽고, (번역할 작품을) 고르고, 번역하여,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내고, 출판이 되면 많은 시간과 자비를 들여 낭독회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출판사가 번역가를 믿고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러한 사정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가 부족했던 것도 어려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출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두 번역가가 작가, 에이전시와 직접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결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브루스 풀턴이 작가와 에이전시 측에게 번역가와 작가, 에이전시 모두의 목적은 결국 하나이며, 그 하나의 목적은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책을 내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해냄 정신’으로 함께 하자고 설득하면서 모두의 동의 끝에 마침내 2020년 9월 *One Left*가 출판되었다.

“우리 번역가, 작가, 에이전시 모두 똑같은 목표가 있는데, ‘해냄 정신’으로 같이 이 작품을 냅시다, 라고 설득하여 결국 동의했어요.” (브루스 풀턴)

32개의 제안서를 쓰고 작가와 출판사, 에이전시와 의견을 나누는 고단한 조율 과정에서 두 번역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을 때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느꼈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이는 번역가, 작가, 출판사, 에이전시가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논의

인터뷰 결과,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한 이해, 다

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여 능동적으로 번역할 작품을 결정하고, 작품의 의미가 독자에게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설 제목부터 미주까지 꼼꼼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번역한 작품이 출판되기까지 30차례 이상 현지 출판사에 제안서를 보내고, 어렵게 얻은 출판 기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저자와 에이전시, 출판사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설득하는 번역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번역물을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번역가가 아니라, 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기까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행동가로서의 번역가를 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번역을 둘러싼 사회적 상호작용과 번역가에게 놓인 사회적 제약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학 번역가를 작가와 같은 창작자이자 예술가로서 존중해야 한다.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문학 번역가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니라 작가와 함께 작품을 창조해나가는 예술가로서 존중하고 한국 작가와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번역가들이 기울이는 헌신적 노력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번역의 중요성이 크다는 인식으로 번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이고도 중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문학 번역가에 대한 존중과 대우다.

우리는 문학 번역가도 창조적 작가이며, 영어로 번역된 우리의 작품은 그 자체로 성공적인 문학 작품이기에 출판되었다는 점을 일반 독자와 출판사, 한국 작가에게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문학 번역가가 없다면, 세계 문학의 지평 속에서 (한국) 작가가 어떻게 정당한 위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We continue to face the challenge of having to convince the general reading public, prospective publishers, and Korean authors themselves that literary translators are creative writers in their own right and that our translations are published because they succeed as works of

English-language literature. Without literary translators, how can authors take their rightful place in the realm of world literature?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의 미발표 글에서)

둘째, 문학 번역가는 작가와 장기적 관계 속에서 작품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즉, 한 작품만 번역하고 교체되어야 할 일회적 존재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작가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담고 작품을 만들어나갈 동반자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번역한다면, 그것은 그 작가를 번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브루스 풀턴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작품의 품질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조심스럽게 낙관적 기대를 보인 바 있는데, 그 낙관의 근거는 한 작가의 작품을 한 번역가가 연이어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사례에 있었다 (Fulton 2011). 브루스 풀턴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번역가와 작가의 장기적 관계는 한 차례만 번역하고 사라지는 일회적 관계보다 더 좋은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왔다(History suggests that a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a translator and an author has better results than relationships built on one-time for-hire translations)”(Bruce Fulton 2011: 783)고 강조한다.

한국 문학번역은 번역가와 작가의 공동기획이다—작가가 고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작가와 번역가의 짝이 잘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어울리는 짝은 미학적 관점의 유사성과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극진한 관심의 공유를 보여준다. (...) 수년간 같은 작가의 많은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로 내는 그 작가의 목소리가 된다. (브루스 풀턴 2011: 78-79)

셋째, 문학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 승주연(2017: 12)은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과정에서 번역가가 작품 선택부터 번역 지원 신청, 저작권 계약, 출판사와의 계약, 판권 페이지 확인 등 많은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도 번역 그 이

9)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이 *One Left* 작품 소개를 위해 작성하였으나 아직 미발표된 글에서 참조하였다(unpublished weblog for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20, 9)

상의 일을 하는 번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역가는 의뢰받은 작품을 정해진 돈만 받고 번역하고 번역이 끝나면 자취를 감추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인의 문학적 가치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믿음과 소명의식에 따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고, 작가정신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번역하고, 번역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자신이 번역한 작품이 미국 시장에 출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회 참여적이며 적극적인 주체이다. 이와 같은 문학 번역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 역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번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문학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이태동(2000)은 문학 번역가를 작가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를 거부하고 일종의 기술자로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며,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고 창조적인 작업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그 전문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가희(2020: 261)도 문학번역을 둘러싼 잦은 오역 논란과 비판을 거론하며 번역가는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해묵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을 번역가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문학 번역가의 목소리를 토대로 번역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넷째, 번역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번역가를 둘러싼 여러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들여다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출판되기 위해서는 작가와 번역가 외에도 에이전트, 출판사 관계자 등 많은 관련 주체의 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문학번역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번역가, 작가, 출판사 관계자의 상호작용(Kardiansyah & Salam 2020), 번역가, 에디터, 감수자의 역학관계(Moe et al. 2021), 번역가와 출판사의 상호작용(Warnqvist 2019)에 주목하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카디안샤와 살람(Kardiansyah & Salam 2020: 593)은 문학번역에서 번역가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논의하는 공간을 “중재의 공간(mediation space)”으로 설명하며 이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문학의 번역에서도 이 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주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이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나 위계질서는 누가 참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맥락과 상황 속에서 참여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의 해외 출판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 KL 매니지먼트의 대표 이구용은 한국의 문학 작품이 영미권 출판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에이전트가 번역가와 유기적 소통을 유지하며 함께 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번역가가 하나의 섬처럼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 번역가, 에이전트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번역가가 출판사 편집자와 저작권 에이전트, 저자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월간 중앙, 2016. 12. 17). 출판 에이전트도 저자, 번역가, 에이전시의 삼각구조를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인데, 이렇게 여러 주체가 제대로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작용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주체가 얽히며 대두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충실성을 거론하는 번역의 윤리나 번역가 개인의 윤리 문제를 넘어서, 번역가가 다른 주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겨날 수 있는 윤리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번역의 생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전문가로서의 상호 책임과 의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에이전시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개인 번역가를 위한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 브루스 풀턴과 주찬 풀턴은 많은 문학 작품을 의뢰나 지원 없이 번역해왔으며 조정래의 『정글만리』를 번역한 *The Human Jungle* 서문에도 두 번역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¹⁰⁾ *One Left* 역시 에이전시의 의뢰 없이 두

10) “한국문학의 번역이 점점 더 상업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의뢰나 지원, 자금 없이 이 작품을 번역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작품을 번역한 우리의 결정은 전적으로 이 작품과 작가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At a time when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to English has become an increasingly mercenary enterprise, we wish to emphasize that we were neither asked nor commissioned to translate this work, and have received no foundation or other institutional funding for our translation. Rather, our decision to translate was based solely on the importance

번역가의 선택으로 시작되어 나오게 된 성과다. 하지만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는 수십 년의 경력을 지닌 문학 번역가조차 직접 작품을 선정한 후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기까지 많은 현실적 난관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 대만 소설이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Kung 2009: 128)에서도 번역가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하여 영어권에 출판하는 작업의 어려움이 잘 설명되어 있다. 주찬 풀턴에 따르면, 영어권의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제안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영어권에서 번역작품을 출판하는 작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번역가가 직접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여 번역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고려할 때 에이전시의 관리망 밖에 있는 작가들의 미래를 우려할 수 있다. 유한대(2017: 140)는 다양하고 낮은 번역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성 위주의 획일적 번역 정책보다 개별 작품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 그란타북스 및 포트벨로북스 부편집자 카 브래들리(Ka Bradley)는 『채식주의자』는 저작권 에이전트가 편집자의 방문을 두드리는 전형적인 방법 대신, 번역가가 홀로 등장하여 편집자의 마음을 두드렸다고 언급하며, 좁은 우물 안에서만 주요 출판 절차가 진행되고 최신 트렌드에 따라 상업적으로 유효한 아이디어만 쫓아가다 보면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작가들을 놓칠 수 있기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와와의 접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산문화, 2015년 가을호). 개별 작품 차원의 접근을 확대하고, 미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번역의 손길이 닿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고 출판사와 접촉을 시도하는 번역가의 존재도 필요하다. 따라서 에이전시의 의뢰 없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선정하여 작업하는 개인 번역가의 노고를 덜고 순조로운 조율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모킹 타이거즈(Smoking Tigers)¹¹⁾와 같은 문학 번역가들의 연대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홍보 단계에서 번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출간 이후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송주연(2017: 14)에 따

to us of the novel and its author.” (*The Human Jungle*의 번역가 서문)

11) <https://smokingtigers.com>

르면 번역가는 언론 인터뷰나 팟캐스트 출연, 강연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역서 홍보 작업에 참여한다. 역서 홍보에서 번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번역가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는 출판사도 있지만, 효율성이거나 예산 문제로 불필요하다고 보는 출판사도 있다(Burgess 2017: 15). 하지만 번역가는 많은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책을 읽은 독자이자 다른 언어로 글을 옮긴 작가로서 홍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제스(Burgess 2017: 16-17)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소통 역량을 갖춘 번역가가 홍보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서 출간 이후의 홍보 과정에서 번역가의 역할은 번역가의 가시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브루스 풀턴, 주찬 풀턴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명』 작품을 번역하기로 결정하고 *One Left*가 출판되기까지 번역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한국문학 번역가를 중심에 놓고 번역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작품 결정부터 출판까지 번역가가 기울인 노력에 초점을 맞춰봄으로써 번역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번역가가 처한 사회적 제약, 번역 그 이상을 하는 번역가의 역할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즉 사회 참여적이며 적극적 주체로서 문학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장기적 동반자 관계로의 접근, 창작자이자 예술가로서의 존중과 보상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일 수 있지만, 아직도 현실 속에서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현실 속 괴리를 줄여나가기 위해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꺼내어 논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번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문화간 교류의 매개로서 번역가의 위치 제고를 위해서는 텍스트 차원에서 주로 번역의 문제점을 찾는 평가적 관점의 연구가 아니라, 텍스트 바깥에서 번역가의 역할과 기여를 탐구하는 사회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문학 번역가의 사회적 상황과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연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곽순례 (2017)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21(3): 1-27.
- 곽순례 (2018) 「아랍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한국문학의 아랍어 번역 현황에 대한 고찰과 과제」, 『번역학연구』 19(4): 7-43.
- 권선형 (2014) 한국문학의 독일어 번역 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2000년대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0(65): 403-440.
- 권세훈과 김갑년 (2012)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과 보급의 현황」,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124: 97-118.
- 권영민 (2020) 영문판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의 출간과 브루스 풀턴 교수」, 『문학사상』 9월호: 50-56.
- 권오숙 (2014) 한국 문학 텍스트 영역(英譯)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통번역학연구』 18(3): 263-289.
- 권혁률 (2011)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번역과 수용에 관한 일고찰 - KLTI 출범 10년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9(2): 79-95.
- 김가희 (2020) 한영문학번역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번역재량에 관한 소고 - 가다머(Gadamer)의 철학적 해석학 이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 260-273.
- 김경희 (2017) 한불문학번역에서의 음식명 번역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82(1): 5-30.
- 김재희 (2018)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방법: 한·영, 한·아 번역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연구』 9(2): 27-48.
- 김정연 (2015) 「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번역과 출판 현황 -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4): 135-195.
- 남윤지 (2020) 프랑스의 이청준 문학 수용에 대한 번역비평적 연구」, 『통번역학연구』 24(3): 1-42.
- 노대원 (2016) 한국문학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세계라는 타자와의 대화를 위하여」, 『우리말글』 71: 411-434.
- 박경란 (2006) 한국문학 번역의 문제점: 제주문학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 구』 4(1): 5-34.
- 박은숙, 박윤희 (2019) *The Vegetarian* 메타담론 고찰, 『철학·사상·문화』 31: 173-203.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 배지연 (2020) 「기억의 서술과 문학적 재현 - 김숨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설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6: 245-276.
- 손지봉 (2010) 한국 문학번역의 세계화 방안, 『구보학보』 5: 433-446.
- 승주연 (2017) 한국문학 번역과 출판에 대한 고찰, 『한국노어노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6: 11-16.
- 신혜정 (2017) 테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657-666.
- 엄순천 (2003)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러시아연구』 13(2): 59-92.
- 오세인 (2019) 국내외 대학의 한국 문학 교재에 나타난 시 영역(英譯)의 문제 - The Columbia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6: 227-265.
- 유한내 (2017) 세계문학 -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나아갈 길, 『통역과 번역』 19(2): 131-152.
- 윤후남 (2012) 「한국문학번역과 처방적 번역규범의 문제점 -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규범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0(3): 147-170.
- 응웬 티 히엔 (2020)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 소개 및 연구 - 현황과 향후 과제」, 『열상고전연구』 70: 77-124.
- 이구용 (2016. 12. 17) [한국문학, 이제는 세계로] 글로벌 시장, 어떻게 나아가나, 월간중앙, 2021년 4월 20일 검색.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4843>.
-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 이 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 137-162.
- 이태동 (2000) 한국문학의 세계화 과정 연구 - 한국문학 세계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세계문학비교연구』 4: 30-56.

- 이현주 (2020) 한국문학작품의 번역품질제고를 위한 중국어 번역전략 연구 - 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1): 263-286.
- 이희재 (2015) 일본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과 현황 - 한국문학작품의 번역과 대중문화의 상관관계, 『일본학보』 105: 59-76.
- 전 쉰언 띠엔 (2017) 한베문학교류와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학작품번역 현황, 『국제언어문학』 38: 171-181.
- 최성은 (2007) 「폴란드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 및 전망」, 『동유럽발칸연구』 18(1): 181-204.
- 최면정 (2014) 「한국 소설의 글로컬 전략 - 해외 독자애의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4: 233-268.
- 한현희 (2018)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의 러시아어 번역 출판 현황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9(4): 321-360.
- Awung, Felix (2014) 'Agency in Translating *Une Vie de Boy* into English: Exploring Translator Identity and Translation Strategies', *Stellenbosch Papers in Linguistics Plus* 43: 17-30.
- Bradley, Ka (2015)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 1, 대산문화 가을호 통권 57호, 2021년 6월 13일 검색. <http://daesan.or.kr/webzine.html?ho=70>
- Burgess, Olenka (2017) 'Elevating the Translator: Best Practic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Literature', *Logos* 28(1): 7-18.
- Buzelin, H el ene (2006) 'Independent Publisher in the Networks of Translation', *TTR* 19(1): 135-173.
- Feinauer, Ilse and Lourens, Amanda (2021) 'Who's the Boss? Power Relations Between Agents in the Literary Translation Process', in Judith Inggis and Ella Wehrmeyer (eds) *African Perspectives on Literary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310-329.
- Fulton, Bruce (2011) 'The Modern Korean Novel in 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0(3): 778-784.
- Kaindl, Klaus (2021) '(Literary) Translator Studies: Shaping the Field', in Klaus Kaindl, Waltraud Kolb, Daniela Schlager (eds) *Literary Translator Studi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39.

- Kardiansyah, M. Yuseano and Salam, Aprinus (2020) ‘Literary Translation Agents in the Space of Mediation: A Case Study on the Production of *The Pilgrimage in the Land of Java*’,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s and Humanities (IJCAH 2020)*, 592-598.
- Kung, Szu-Wen Cindy (2009) ‘Translation Agents and Networks, with Reference to the Translation of Contemporary Taiwanese Novels’, in Anthony Pym and Alexander Perekrestenko (eds) *Translation Research Projects 2*, Intercultural Studies Group, 123-138.
- Moe, Marija Zlatna, Južnič1, Tamara Mikolič and Žigon, Tanja (2021) ‘Who Determines the Final Version? The Roles of Translators, Language Revisers and Editors in the Publishing of a Literary Transl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22(1): 14-44.
- Simeoni, Daniel (2007) ‘Translation and Society: The Emergence of a Conceptual Relationship’, in Paul St-Pierre and Prafulla C. Kar (eds) *In Translation – Reflections, Refractions, Transformation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3-26.
- Wamqvist, Åsa (2019) ‘Don’t Be Too Upset With Your Unchivalrous Publisher: Translator-Publisher Interactions in the Swedish Translations of L.M. Montgomery’s Anne and Emily Books’, *Barnboken* 42: 1-37.

[Abstract]

The Role of Translators in the Process of Korean Literature Going into the US Market: Focusing on Bruce and Ju-Chan Fulton Surrounding the Publication of Kim Soom’s Novel *One Left*

Kim, Jagyeong
(Chung-Ang University)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ry works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domestic translation studies,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ole of literary translators. Hence, this study aims to spotlight literary translators by means of an interview with two representative Korean-to-English literary translators, Bruce and Ju-Chan Fulton. The interview investigates their task in deciding to translate Kim Soom’s novel “한 명” and finally securing publication of their translation, *One Left*. The interview results bring to the fore a portrait of literary translators as enthusiastic artists who select a literary work to translate based on their own values and beliefs, who translate with deep affection and respect for an author and her work, and who undergo ceaseless negotiations with publishers and literary agents to get their work published – an enormous and time-consuming effort mostly hidden and rarely discussed so far. The results point to the necessity of shedding further light on the role of literary translators and their extra-textual effort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and socioeconomic aspects of literary translation.

- ▶ Key Words: Korean literary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ors, role of literary translators, literary translation process, social interaction of agents involved in the publishing of a literary translation
- ▶ 주제어: 한국 문학번역, 문학 번역가, 문학 번역가의 역할, 문학번역 과정, 문학번역 출판 과정에서 주체의 사회적 상호작용

김자경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초빙교수

vandi98@naver.com

관심분야: 번역 과정, 번역가, 문학 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5월 9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4일